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주님 은총의 빛이 신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대부분 젊은이기에 그들을 표현하는 신세대 장병이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표현입니다. 변화에 민감한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군대는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간부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의 변화 역시 그 어느 조직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군종장교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장병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점점 부대에서 만나게 되는 장병들에게 종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장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장병들이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선교에 힘쓰지만, 장병들이 종교센터를 찾는 발걸음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부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종교활동보다 그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휴대폰과 휴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당을 찾는 장병들을 보면 대견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희망하는 장병을 마주하게 될 때는 교리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일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을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교리를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묻고 답하는 형식의 교리문답을 좋아합니다. 예비자교리를 시작하는 장병에게 “당신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받은 장병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을 합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향한 질문과 그 고민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 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군대에서 성당을 방문하여 하느님을 찾고 믿음이 더해 나가길 희망하는 장병들이 그들의 믿음을 더해 하느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그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청해봅니다.



최권우 펠릭스 신부 | 군종 은성대성당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하바 1,2-3; 2,2-4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 서	2티모 1,6-8,13-14
복 음	루카 17,5-10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세상 끝까지 퍼뜨려라.”(이사 48,20)

오늘은 제55회 군인 주일로, 국토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장병들과 이들을 사모하는 군종신부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2년간 군인 주일에 군종사제들의 민간교구 성당 파견을 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군종사제들을 파견할 수 있었고 저 역시 신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뵈오니 무척 반가운 마음입니다.

군인 주일을 맞아 잠시 한국 군종사목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군 안에서의 군종사목은 6.25전쟁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8군 연락 담당이셨던 캐롤 안 몬시뇰은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군종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엔군처럼 국군장병들에게도 사생관, 종교심 함양을 위한 군종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1951년 2월 육군본부에 군종과가 설치됨으로써 군종제도가 창설됩니다. 그리하여 11명의 신부들이 육군에 첫 발을 디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1951년 8월, 해병대는 1952년 8월, 공군은 1952년 3월부터 군종사목이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부터는 월남파병도 이뤄졌는데, 8년간 군종신부 33명이 교대로 파병되어 사목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해군 청해부대 그리고 레바논, 남수단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종교구에는 100여 명의 육·해·공·해병대 군종신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 군종신부가 상당히 증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신부 한 명당 담당하는 부대는 2~3곳에 이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루카 15,4)

군종사목의 특성은 ‘찾아 나서는 사목’입니다. 군종신부들은 주일에 성당에 나오는 병사들뿐 아니라, 전방과 격오지 부대 근무자들을 찾아가 사무실 또는 식당을 빌려서라도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베풁니다. 성당에 오는 이들과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로 찾아가는 사목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신부님은 주말이면 공항이나 터미널로 차를 몰고 나가서 병사들을 픽업하여 부대까지 데려다주는 활동을 합니다. 차 안에서 군 생활의 애로 사항도 면담해 주고, 자신이 부대 군종신부임을 밝히며 종교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병사들 중에 군종신부님과의 차 안에서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주일에 성당에 나오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사제들이 사제관, 성당을 벗어나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는 말씀을 언젠가 하셨습니다. 집 떠난 아들을 마을 어귀에 나아가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던 아버지의 역할을 군대에서 우리 군종신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종신부들과 하느님의 말씀 전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군 복음화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사도 10,31)

현재 군 사목을 후원하는 군종후원회는 10개 교구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와 부산교구가 군종후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군종신부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각 교구 군종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인 주일이 되면 군종신부들은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군 신자들을 남겨두고 군종신부들은 모두 특별강론과 2차 헌금을 위해 민간본당들로 파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인 군인 주일의 2차 헌금은 전액 군종교구로 전달되고, 군종후원회의 지원금까지 합쳐 교구 1년 예산의 85%를 충당합니다. 이를 통해 군종교구는 성당이나 공소 신·개축을 지원하며, 성경과 신앙서적, 묵주, 십자가와 같은 신앙상징물을 보급합니다. 또한 각 교구 군종후원회에서는 군인 주일에 ‘군종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군종신부들이 더 활발한 사목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마음을 담아 꼭 군종후원회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군종교구를 사랑하시고, 장병들과 군종신부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과 피해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모든 군종사제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 사목의 일선에 있는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시편 33,5)

2022년 10월 2일, 군인 주일에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겸손(謙遜)

루카 14,11은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고 했고, 집회 3,18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면 주님의 총애(寵愛)를 받는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살 것을 강조했다.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

교학 한국어 사전에서 겸손은 ‘남을 대할 때 켜체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했다. 켜체한다는 말은 ‘잘난체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겸손을 humility라고 한다. 이것은 라틴어 humilitas의 파생어(派生語)이고, humilitas 어근(語根)은 땅이라는 라틴어 humus이다. 그리하여 겸손의 뜻은 땅의 속성에서 잘 알 수 있다.

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 떠받친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재생(再生)시켜 준다. 겸손의 삶이란 이렇게 땅의 속성(屬性)처럼 자신을 낮추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짐돌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인간적’이라는 영어 human과 ‘인본주의’라는 영어 humanism도 라틴어 humus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외치며 인간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참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필리 2,6-7 참조)고 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1,29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하셨다.

1978년 8월 26일 제263대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1세는 ‘미소의 교황’으로 일컬어졌으나, 재위 33일 만에 선종했다. 교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항상 겸손을 당신 사제직의 중심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복되어 신앙인들의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경쟁 시대라고 하는 요즈음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윗자리를 차지하여 인정받고 싶어 한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사이(Pharisee)파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다. 제자들도 가장 큰 사람에 관한 논쟁(마르 9,33-37 참조)과 그것을 위한 청탁 행위(마르 10,35-45 참조)를 했을 정도였다.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 반드시 겸손하게 살아야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 윗자리와 하느님의 나라도 그런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사상가이자 도가철학(道家哲學)의 시조였던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 제8장에서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 물은 서로 다투지 않고, 앞이 막히면 피해 간다. 둥근 모양에 들어가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모양에 들어가면 네모꼴이 된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시냇물의 왕(王)이 된다. 이리하여 물도 땅과 함께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

한마디로 겸손한 삶이란 땅과 물의 속성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모든 덕행의 근본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보약(補藥)이 된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정치(政治)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차라리 옷 벗고 정치나 하시지!”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리고 그 아픔을 만들어내는 부조리에 맞서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걸까? 처음에 저 말을 들었을 땐 답답하고 속이 많이 상했다. 하지만 그동안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이젠 무덤덤하다. 오히려 요즘은 웃으면서 이렇게 응수한다. “옷 벗으라고요? 그거 성희롱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부 때려치우고 정치나 하라’는 이 말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몰이해’다. 전 세계 직업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직업으로 과학자, 의사,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이 꼽히지만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으로는 언제나 공통적으로 정치인이 꼽힌다.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실수, 부패, 무능 때문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정치 없이 우리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올바른 정치 없이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든 형제들』 176항 참조)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政治)란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스림’은 ‘다 살림’과 통한다.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지게 하여 두루두루 다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다스림이다. 다스림은 본래 하느님에게서 연유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가꾸고 돌보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성서 전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낮아지고 섬기고 비우고 내어주는 모습이다. 이는 사람들을 들어 높이기 위해 내려오시고, 채워주기 위해 비우시고,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왕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필리 2,6-11 참조).

하느님은 이 다스림을 인간에게 위임하신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맡기신 이 다스림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태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다 어우러져 잘 살아나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창세 1,26-31 참조).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대로 다스리라는 말씀이다(마태 20,25-28 참조). 이 명령을 받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 안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하느님이 위임하신 다스림의 직무에 성실히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등장한 왕이란 것도 실은 참된 왕이신 하느님의 다스리심에 봉사하는 대리인에 불과했다(시편 72장 참조).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정치 역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정치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하느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봉사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정치란 결국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사라진 정치를 뜻한다. 이 나쁜 정치의 실체가 예수님께서 맞닥뜨리셨던 광야에서의 유혹에서 잘 드러난다. 악마는 말한다.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마태 4,9)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가 아닌 불의와 차별이라는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유혹이다. 물론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신다. 예수님은 악마가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절하심으로써 불의와 차별의 악이 아닌 섬김과 봉사의 선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의 참된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스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요한 13,1-20 참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과 귀족들이 매번 걸려 넘어졌던 유혹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수많은 정치인과 정치공동체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의로운 정치인의 출현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쁜 정치를 몰아내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공동체의 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의 각성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질적으로 정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일이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다스림의 사명은 정치인이나 정치공동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다. 따라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정치 즉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양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요 의무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누구보다도 더욱 충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해야 할 사명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신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정치 참여는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2013년, 예수회 학교에서)

정치라는 것이 이런 거라면 이 시대 우리는 모두 ‘옷 벗고 정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겹쳐붙이고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못마땅하다면...교황님께 따져 보시라.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해동(요한 크리스토토모) 신부
1975년 10월 6일

교구장 서리 동정
사천본당 60주년 기념미사
일시: 10월 9일(주일) 10:30

▶ 교구/본당

소공동체장 연수-마산지구
일시: 10월 6일(목) 13:00/ 장소: 월영성당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10월 9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10월 2일(주일) 10:30
장소: 장재동성당(10월 미사만 시간, 장소 변경)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0월 기도모임
일시: 10월 3일(월)
14:00~15:00-미사, 특강(정운호 신부)
15:10-회의/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 기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0월 9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0월 15일(토)~16일(주일)/
11월 5일(토)~6일(주일)
3박 4일- 11월 10일(목)~13일(주일)/
12월 15일(목)~18일(주일)

8박 9일- 10월 25일(화)~11월 2일(수)/
11월 16일(수)~24일(목)
40일: 12월 10일(토)~23년 1월 18일(수)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파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면형의집 파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파정
자연순례: 10월 18일~20일/ 10월 24일~26일/
11월 18일~20일
성지순례(추차도): 11월 5일~8일/ 11월 12일~15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파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10월 20일~22일/ 10월 24일~26일/ 11월 1일
~3일/ 11월 11일~13일/ 11월 15일~17일/ 11월
21일~23일/ 11월 26일~28일/ 12월 2일~4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진영본당 사무장 채용 공고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 된 신자, PC사용
이 가능하고 운전면허1종 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응시원서(본당제공), 교적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mc2jy@cathms.or.kr)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북로110 진영성당
문의: 진영성당 사무실 055·343·2018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폐기함

교구 가톨릭미술인회 제26회 정기전

일시: 9월 28일(수) 14:00~10월 4일(화) 12:00까지
장소: 마산 3.15아트센터 제1전시실(2층)
관람시간: 평일-10:00~19:00, 주말-10:00~18:00
문의: 사무국장 010·9600·7994
※회원모집: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자

✦ 이은진 도미니코 신부 모친 선종

이은진 신부(하대동본당 주임)의 모친 이봉오
(카타리나)님께서 9월 24일(토) 선종하여
9월 26일(월) 망경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일정: 2023년 7월 22일(토)~8월 9일(수) 18박 19일
순례(스페인 일대), 교구대회(포르투갈 일
대), 본대회(포르투갈 리스본)
지원자격: 1988~2004년생, 6차의 사전교육에 참
가할 수 있는 자, 20명 선발
예상참가비: 450~500만 원(최대 100만 원 교구 보조)
신청: 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
cathms.kr), 10월 9일(주일)까지
선발일정: 10월 15일(토) 14:00 교구청-설명회 및 면담
10월 24일(월)-참가자 확정 개별 통보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2023 WYD 공식 홈페이지: www.lisboa2023.org

함안안나의집 입소 안내(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함안안나의집은 가정과 같은 시설(정원 9명)로
입소 어르신들에게 가톨릭 정신으로 도와드리
고자 하오니, 입소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
의 연락을 바랍니다.

대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1~4등급 자 노인 중
시설급여 대상자(3, 4등급 자는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정 세레나)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구	10월 3일(월) 19:00	중앙동성당	계속되어야 하는 소명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010·5072·5612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로레스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레자 요한)
010.5053.5393

가톨릭신문 투어

▶11/1~12 산티아고 도보순례 430만 원
▶11/11~23 이탈리아 495만 원
▶12/1~9 이스라엘 370만 원
▶23.1/30~2/10 이스라엘·이탈리아 495만 원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577-5006
www.cttour.org

파크 골프 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 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두 가지 걱정

이주언 레지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나의 큰아들은 결혼 적령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결혼할 마음이 없는 듯하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인구 2명당 자녀 2명은 낳아야 인류가 유지될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할 마음이 없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할 마음이 없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에 불과한데 조만간 0.7대로 떨어질 예정이란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수치다.

OECD가 조사한 작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프랑스 1.8, 미국 1.66, 영국 1.61, 스위스 1.51, 일본 1.3, 이탈리아 1.25, 한국 0.81이었다. 우리나라가 꼴찌 수준이다. 수치들을 보서는 개인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지구 온난화다. 『호모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는 300년쯤 지나면 인류가 멸망할 것 같다 하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지금처럼 계속 살다가는 이번 세기가 무사할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계산을 해보았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므로 2100년에는 자식들이 인생의 꼬트머리쯤, 손자의 나이가 70대, 증손자가 30~40대 정도에 해당할 것 같다. 그들의 고통을 떠올려보면 차라리 내 아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게 아픔이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속 좁은 소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엄마 혹은 할머니의 마음으로, 자식 혹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 고통 속에 살기를 누가 바라겠는가.

그런데 이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산불들, 폭우, 빙하의 소멸,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질병 등이 모두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나무들이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는 산불이 났을 때 모두 배출되고, 빙하가 녹으면 동토 속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가 새어 나와 이산화탄소의 몇 십 배 농도로 온난화 결과가 날 것이라 한다. 생태교란으로 바이러스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인데, 특히 빙하 아래의 땅속에는 탄저균도 갇혀 있어서 빙하가 녹으면 탄저균 전염병도 발생할 거란다. 그로 인한 피해가 시베리아에서 벌써 발생했는데 9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300여 마리의 순록이 폐죽음을 당했단다.

결과적으로 ‘출산’보다 중요한 게 ‘기후’인 셈이다. 현대인은 물론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생명 탄생 그 자체가 불행이 될 것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가끔 모여서 기후 회의도 해왔지만, 지구에 사는 생명의 멸종 시대는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가, 기업, 개인들이 제 나름의 노력을 한다면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 희미한 희망을 가져본다. 모두가 아직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디테일한 과학적 방안들이 나오고, 우리는 거시적인 마인드로 환경윤리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박성임 시집(가톨릭문인회원)

사랑의 시작

저의 시 쓰기는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함, 죄의 회개와 보속, 참회의 일기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늘과 땅, 해와 별을 노래하는 우주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7 가톨릭마산 2533호

—‘시인의 말’ 중에서—

할머니의 색동 목주

나자렛 예수 수녀회

전교의 달을 맞아 미사 30분 전 성모 동산에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 맨 뒷줄에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할머니께서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입을 오셨거나 친척 집 방문을 오신 신자분이겠거니 생각하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세례명을 여쭙었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던 할머니께서는 4개월 전 성당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라 성당에 다니고 싶어도 교리반 등록이 어려웠던 사정과 성당 마당에 모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 참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사정을 전해 들으신 주임 신부님께서는 직접 할머니에게 교리 지도를 해 주셨고,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주요 기도문을 녹음하여 할머니께서 익히실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리 공부를 하신 할머니는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간절히 갈망했던 소망이 이루어져 ‘레지나’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바느질 솜씨가 좋은 할머니는 제의실이나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구 재료를 손수 만들어 주시는 사랑의 나눔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 후 레지나 할머니가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시며 바구니를 내미셨습니다. 그 안에는 천으로 만든 장미 꽃송이가 색색으로 가지런히 담겨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장미 꽃송이는 뭐예요?”라고 여쭙니 “내가 묵주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만든 꽃송이예요. 천으로 만든 것이지만 묵주기도를 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에 신부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라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레지나 할머니는 76세 고령이신지라 기도문을 듣고 암기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교리 때 배우신 것을 생각하시며, 순교를 의미하는 홍색으로 십자가를 만드셔서 사도신경을! 녹색의 장미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초원을 생각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하늘색 장미꽃은 성모송을! 흰색 장미꽃은 부활을 생각하시며 영광송과 묵주기도의 신비 지향을! 보라색 장미꽃은 회개와 보속의 의미로 구원송을! 묵상하시며 묵주기도를 바치시기 위해 천 안에 솜을 채워 넣으면서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마음을 기도에 담아 장미 꽃송이 60개를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꽃송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려구요?” 걱정스럽게 여쭙시는 신부님께 “작은방을 기도 방으로 만들었어요. 방바닥에 5단 묵주 꾸러미의 모양으로 하나, 하나 꽃송이를 내려놓으며 묵주기도를 드리려구요.”

비록 묵주기도의 기도 말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하시려는 할머니의 말씀에 신부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장미 꽃송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글 읽기를 가르쳐 드리는 날에는 할머니와 함께 방바닥에 꽃송이를 내려놓으며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아직 글 읽기가 서툰 할머니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시어 구원 사업을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마음으로 묵주기도의 각 단이 지향하는 신비를 곰곰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친교 안에서 예수님의 일생과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는 은총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유창한 언변이 아닌 단순하고 소박함으로 내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들음의 기도’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던 레지나 할머니의 겸손한 모습이 유난히 생각나는 10월입니다.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숙제로 여기며, 각자의 사연이 있는 분심 속에 논리적으로 정리된 기도를 바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성모님께서 바치신 온전한 의탁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전적인 순명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린 성모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기도드리며,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